

제21편 - 제3신앙촌시대(마지막)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마지막회)

제21편
제3신앙촌시대 마지막
一. 삼천년성(三千年城)
二. 삼신양촌과 삼천년성
三. 회복된 하나님 나라 삼천년성
1) 구세주가 출현한 나라 대한민국
2)구세주가 발하는 빛이 온 우주를 밝힌다
3)동방에서는 구세주의 영광을 서방에서는 구세주의 이름을 경외(敬畏)한다
4) 열방의 재물이 다 구세주에게로 온다
5) 구세주 섬기지 않는 나라는 파멸(破滅)한다
6) 영원한 천국 삼천년성인 하나님의 나라
7) 회복(回復)된 하나님의 나라 수도(首都)가 소사(素砂)에 세워진다

三. 회복된 하나님 나라 삼천년성

7) 회복(回復)된 하나님의 나라 수도(首都)가 소사(素砂)에 세워진다

6000년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데 성공을 거두시는 구세주하나님께서는 소사땅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수도(서울)를 세우시게 된다. 금강석(金剛石)과 각종 금은보화(金銀寶貨)로 꾸며서 세워지는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수도는 찬란하기 이를 데 없는 화려한 궁전이다. 격암산성은 천봉지탁소사립(天崩地挾素砂立)이라고 예언하여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소사에서 다시 세운다고 예언하였다. 이 소사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고 마귀의 나라를 박멸시킨다. 하나님이 전초기지인 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는 데 성공하셨다.

武陵桃源仙境地 鷄籠白石平沙灣
무릉도원선경지 계룡백석평사간 은비가
貞潔淨土別天地 金築寶城四千里
“무릉도원 선경지인데 이곳은 계룡백석인 소사땅이다. 즉 부평과 소사 사이에 있는 소사 땅이다.”
平沙三里福地로서 武陵桃源種桃處가

격암유록 新 해설
제103회

勝運論 승운론

是故古訣預言論 시고고결예언론에 隱頭藏尾着亂 은두장미착란하야 上下次序紊亂 상하질서문란기로 有智者 유지자에게 傳進했으니 無智者 무지자는 憤之신지하라 識者憂患 식자우환되오리라 天生有姓人間無名 천생유성인간무명 鄭氏 정씨로만볼수있나 鄭本天上雲中王 정본천상운중왕이 再來春日鄭氏王 재래춘일정씨왕을 無後裔之子孫 후후에지자손으로 血流島中天朝 혈류도중천조하네 天縱之聖鄭道令 천중지성정도령은 子子單身無配偶 혈혈단신무배우라 何姓不知天生子 하성부지천생자로 無父之子 무부지자傳進했으니 鄭氏道令 정씨도령알라거든 馬枋兒只問姓 마방아지문성하소 鷄籠鄭邑海島千年 계룡도읍해도천년 上帝之子無疑 상제지자무의하네 雙弓雙乙矢口者生 쌍궁쌍을시구자생 訪道君子不知人 방도군자부지인가 弓弓之間背弓理 궁궁간배궁리로 亞細亞棕佛傳 불야종불전했으니 曩嚳佳氣背占數 흥총기기배점수에 項出現彌勒化 항점출현미륵화라 落淚血流四海和 낙루혈류사해화로 死之征服解冤世 사지정복해원세라

평사삼리복지	무릉도원종도처	生初之樂생초지락
淨土福地아닌가...鷄籠論		
정도복지	계룡론	
		“인간의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난 아주 정결하고 아름다운 별천지인데 이 곳에 금은보석으로 단장한 성은 사방천리(四方千里)에 이른다. 12대문은 밤낮으로 열려 통행을 하고 선관선녀들이 안내를 한다. 금동과 옥녀와 하늘나라 임금과 선비들이 가야금 타는 그 한 곡조 소리는 청아하고 아름다운 곡이로다.”
“부평과 소사는 삼리요, 복된 땅이라 했는데 이곳은 무릉도원이 선경(仙境)이 되게 미리 복숭아씨를 심어 놓은 이곳은 정도복지인 불국토 천국이 아닌가”	위 예언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경 낙원인 무릉도원을 상징으로 예언해 놓은 것이다. 종도처(種桃處)란 복숭아 씨를 심어놓은 곳이란 뜻인데 무릉도원이 되게 복숭아 종자를 미리 뿌려 놓은 곳이란 뜻이다. 그리고 무릉도원을 상징적으로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곳 소사가 복숭아 나무가 많은 고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용어도 많지만 무릉도원이란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상상 속의 무릉도원이 이곳 소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승리하신 하나님 구세주님은 왕중왕이 되시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곳 소사에 사방 30리에 달하는 방대하고 웅장한 회복된 하나님 나라 서울인 수도를 세워 다스리게 되는데 소사에 세워지는 수도 서울의 구세주 하나님의 궁전은 눈이 부시어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하고 화려한 보석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貞潔淨土別天地 金築寶城四千里
정결정도별천지 금축보성사천리
十二門開晝夜通 仙官仙女案內人
십이개문주야통 선관선녀안내인
金童玉女天君主 彈琴一聲清雅曲.....
금동옥녀천군사 탄금일성청아곡

十二帝國朝貢일세 華城鄴縣松京지	십이제국조공 화성현양송경	寶物倉庫 싸였으니 金築金剛石彫城은	보물창고 금축금강석조성
夜光珠로 端 粧하니.....	桃符神人	야광주 단장 도부신인	
“세계 열방이 조공을 바치려고 몰려오는데 수원(화성), 서울(한양), 개성(송경)에 보물창고 쌓인다네. 금강석으로 조각을 하여 성을 쌓고 야광주로 단장한다.”			
“그 성은 금강석으로 쌓고 그 성읍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같더라. 성읍의 성터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금강석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청옥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황마노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적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열두문은 열두진주니 문마다 각각 한 진주요, 성의 거리는 맑은 유리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임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곧 그 등이 됨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		

“그 성은 금강석으로 쌓고 그 성읍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같더라. 성읍의 성터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금강석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청옥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황마노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적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열두문은 열두진주니 문마다 각각 한 진주요, 성의 거리는 맑은 유리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임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곧 그 등이 됨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

지고 성으로 들어오는지라. 성문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항상 낮이요, 밤이 없도다.”(묵21:1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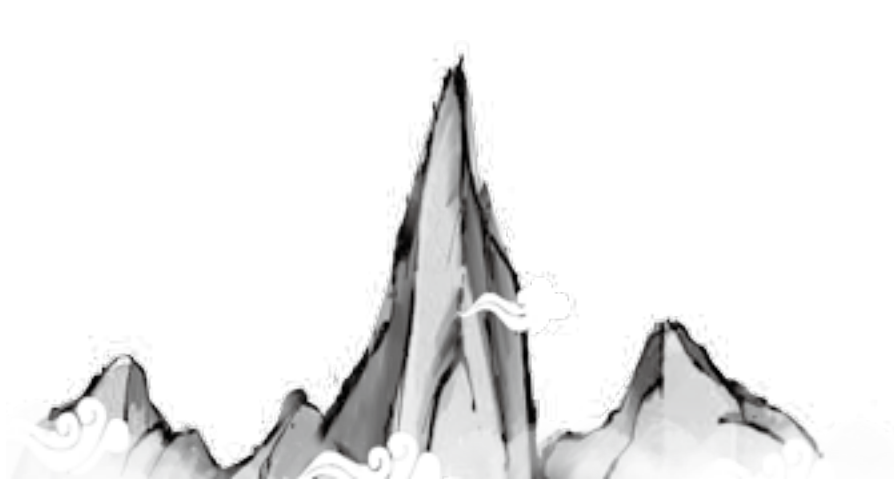
위에 소개한 생초지락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이 너무나도 같다. 주야로 성문을 닫지 않고 통행한다는 내용과 금강석 등 금은보화로 성을 건축한다는 내용이 너무도 똑같다.

이와같은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사방 30리나 되는 구세주 하나님의 궁전이 소사에 세워지는 것이다.(생초지락 참조) 이 곳은 전 우주를 호령하시는 정도령님 구세주님이 계시 온 우주의 중심인 수도(首都)가 된다. 그래서 천봉지탁소사립(天崩地挾素砂立)이라고 했다. 이곳 소사에서 하늘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곳에 당신의 궁전을 세우시고 온 우주를 호령하게 되는 것이다.

전세계 인류가 인류 역사 이래 가꾸어 간직해 온 각종 보석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에 쓰시기 위하여 예비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의 궁전을 지으실 때에 그 각종 화려한 보석을 다 구세주 계시는 한국의 소사로 싣고 와서 쓰게 되는 것이다.

列邦之中高立鮮 列邦巍巍 歌舞來 海中 열방지중고립선 열방호접 가무래 해중 豐富貨歸來 諸邦島歎屈伏鮮 無論大小 풍부화귀래 제방도어굴복선 무론대소 邦船艦 聖山聖地望遠來 引率歸來列邦 邦船艦 聖山聖地望遠來 引率歸來列邦 民 無罪人生永居宮 有罪人生不入城 民 무죄인생영거궁 유죄인생불입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정도령은 죽음을 정복하여 인류의 멋진 원한을 풀어주느니라



치에서 불야종불(亞細亞棕佛)이 나음을 전했느니라. 죽었던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상서로운 기운인 용마와 영귀의 등에 있는 흑백의 점들 중에 중앙 각 5점(6+5=10) 구세주의 운수를 맡아 출현하신 미륵불이시며 피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를 화합 화평하게 하시니 사망의 권세를 쥔 마귀를 소탕하여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인류의 멋진 원한을 풀어주느니라.

桃符神人 도부신인

十勝道靈出世 심승도령출세하니 天下是非紛紛 천하시비분분이라 克己魔 극기마로 十勝變 심승변이 不俱者年赤猴 불구자년적후로다 松柏之化一人 송백지화일인으로 列位萬邦玉無瑕 열위만방옥무하를 世上罪惡窟當 세상죄악당당코자

背天之國永破滅 富貴貧賤反覆日	배천지국영파멸 부귀빈천반복일
日光晝更無月光之極 七日生寶石照	일광주경무월광지극 칠일생보석조
列邦望色福地來 更無月虧不夜光明	열방망색복지래 갠무월휴 불야광명
- 來貝豫言六十歲(래배예언육십세)	

“세계 열방 중에서 높게 솟아오른 조선(한국)이여! 전 세계 열방에서 별과 나뭇가층을 추며 꽃을 찾아 날아드는듯 모여오네. 이때 바다에서는 풍부한 보화가 한 국으로 찾아오는구나. 세계 열방과 섬나라 모두가 한국에 굴복하며 크고 작은 열방의 선함(船艦)들이 물려옴은 말할 필요가 없구나. 구세주가 계시는 성산 성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오는데 열방의 민족들이 인솔하고 찾아오는구나. 죄없는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는 궁궐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세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라는 파멸하는데 이때는 부귀와 빈천이 뒤바뀌는 날이 된다. 햇빛은 낮만 있고 다시는 달빛이 필요 없는 세상이요, 일곱색을 발하는 빛은 보석처럼 빛난다. 세계 열방이 그 빛을 바라보고 복된 이 땅을 찾아오고 다시는 달이 이즈러짐이 없고 밤이 없는 광명한 세계로구나”

6000년 만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기신 하나님이 되신 조희성 구세주님은 세 분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좌요, 예멘동산이 회복된 분이며 삼천년성이다. 이후 이 분을 통하여 무수한 천국으로 회복된 무리들이 출현하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회복이 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은 조희성님이 삼천

년성으로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다.

金木合運東西로서 地上仙國 創建이라	금목합운동서 지상선국창건
先出其人後降主로 無事彈琴千年歲라.	선출기인후강주 무사탄금천년세
.....末運論	말운론

“금운이신 조희성 구세주님과 목운되시는 박태선 영모님의 운이 합하여져서 지상선국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하시는구나. 먼저 출현하신 박태선 영모님과 뒤에 강림하신 구세주 조희성님이 아무 일이 없이 무사히 거문고를 타시면서 천년 세월을 지내시는구나!”

박태선 영모님과 조희성 구세주님이 출현하시면서 6000년의 대성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데 성공을 거두시는 것이다. 결국 조희성님에게 삼신이 일체로 되어 좌정하게 되시니 이 분이 삼위일체로 완성이 되신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이다. 또 삼천년성이다.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토록 조희성 구세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구세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다.

“나의 산 것을 가리켜 증거하노니, 모든 무릎이 반드시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반드시 하나님을 찬미하리라”(롬 14:11)*
이번 회로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키는 역사였다』 연재물을 마칩니다. 열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弓弓隱法十勝和 궁궁은법십승화라

말세의 죽을 운을 당한 자들이여! 의심 말고 수도(修道)하고 건우곤마(乾牛坤馬) 쌍궁(雙弓=弓弓)의 이치로 지상에 천사가 출현하는데 눈으로 보고도 모르니 어느 누가 알아볼 수 있겠는가? 궁궁의 숨은 법은 심승의 화합 화평일세. 화(和)는 화로애락 속에서도 절도에 맞음을 의미하며 반대로는 불화(不和) 또는 불협화음이다. 화평 화합 화복함 상태가 안 되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객관)의 세계과는 관계가 겹겹럽거나 피해를 주거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승의 법과 상관없는 것이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p>우 422-826</p>	광고 및 구독신청 <p>전화 032) 343-9985</p> <p>FAX 032) 349-0202</p>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요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